

##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녹색평화적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의 현황, 그리고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평화적인 이용, 그리고 남북한 공유하천과 농경지의 공동이용, 비무장지대 통과 교통망의 연결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녹색평화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의 가치를 높여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조성, DMZ녹색평화생태공원 조성, DMZ녹색평화의 강 추진, DMZ녹색평화브리지 건설, DMZ녹색평화의 들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비무장지대에 형성된 생태자원의 보전과 남북의 평화 창출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다.

주제어: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녹색평화

## I. 서론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한국전쟁의 아픈 흔적이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됨에 따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인 활용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의·동해선 철도 및 국도 1·7호선 연결사업 외에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지역의 철저한 보전,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 평화와 화해의 상징지대로의 보존, 남북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 및 평화공업단지, 생태공원, 농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안중환 외, 1995).

그러나 비무장지대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활용의 당위성을 강조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비무장지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김재한 외, 2000 ; 원병오 외, 1996 ; 제성호, 1997). 또한 비무장지대와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현안에 대한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특성과 생태계의 상태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활용과 남북한 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대결과 단절의 공간에서 남북한 화합과 통합의 꿈을 이루어가는 평화와 연합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

다.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인간 발걸의 차단은 귀중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분단의 공간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동시에 비무장지대는 평화를 열망하는 온 세계 평화인들의 관심의 공간이 되었으며 평화창출을 위한 노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핵과 천안함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특별히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상태에 있지만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염원은 식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어, 남북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지역인 비무장지대가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회복의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절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제2절에서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협력사업의 구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고 향후 전개방향이 제시된다.

## Ⅱ.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현황

### 1. 형성배경

비무장지대 설치의 목적은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그 역할은 군사적 완충지대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감시체제하의 격리공간을 둬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1항과 3항에 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김영봉 외, 2003). 따라서 이는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으로는 정전협정 제19~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43항에 의해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주된 관리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 2. 지형과 토지이용

### 1) 지형적 특성

비무장지대는 동고서저의 우리나라 일반적 지형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부는 평야 및 해안지대, 중부는 산악형 지형, 동부는 고지대와 해안지대를 이루고 있다. 지형의 특성에 따른 남북한 협력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동부산악 및 해안지역은 태백산맥의 북부와 동쪽 해안사면에 위치하여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고,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협력에 적합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중서부내륙 및 서부연안지역은 평야와 강하구 저습지가 발달하고 있어 교류협력지구 및 다양한 산업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김영봉 외, 2003).

토지이용의 경우 산림청 임업연구원(2000)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총 토지면적은 90,703ha로 산출되었고, 북한지역이 남한지역보다 431ha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의 토지는 산림지역이

75.5%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지가 20.3%, 농경지가 2.8%, 습지 1.1%, 나지 0.1%, 수역 0.2% 등이다. 농지의 경우 3/4 이상이 북측에 분포하고, 임진강이 흐르는 서부 비무장지대, 특히 판문점과 대성동마을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동부산악 및 동부해안지역(고성군 일대)은 태백산맥의 북부와 동쪽 해안사면에 위치하며 표고 1,000~1,700m의 장년산지가 주능선을 이루어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고 있다. DMZ 일원의 하천은 크게 임진강 수계, 한강 수계, 동해안 수계로 구분된다. 임진강 수계의 하천은 사천강, 사미천, 임진강, 역곡천, 상류천, 한탄강, 김화남대천으로, DMZ를 관통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강수계의 하천에는 금성천, 쌍룡천, 북한강, 수입천, 인북천, 서화천이 있다. DMZ를 지나는 모든 하천은 반세기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DMZ 일원의 습지는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다. DMZ와 민통선 지역을 관통하는 물줄기와 함께 발달해 물줄기 주변은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한 상태이며, 주로 DMZ 일원 중서부 지역의 저지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뛰어난 생물종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농지는 많은 지역이 습지화되어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파주의 판문벌지역과 철원의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은 묵논습지화되어 있고 고성비무장지대는 해안사구가 넓게 형성되어 해안습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sup>1)</sup>

## 2) 토지이용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경우 남측지역은 비무장지대 내외의 토지이용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나, 북측은 산지개간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

1) 김귀곤, 『평화와 생명의 땅 DMZ』, 드림미디어 (2010), p. 6.

었거나 황폐지로 전환된 것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1〉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형태 (단위 : ha, %)

구분	남측		북측		계	
산림	35,017	(77.6)	33,480	(73.5)	68,497	(75.5)
농경지	588	(1.3)	1,907	(4.2)	2,495	(2.8)
초지	9,091	(20.1)	9,324	(20.5)	18,415	(20.3)
습지	226	(0.5)	806	(1.8)	1,032	(1.1)
나지	86	(0.2)	12	(0.0)	98	(0.1)
수역	129	(0.3)	37	(0.1)	166	(0.2)
계	45,136	(100)	45,567	(100)	90,703	(100)

자료 :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임업연구원, 2000).

### 3. 주요생태 현황

#### 1) 산림유형 및 현황

DMZ 일원 산림 생태계는 동부지역부터 철원평야에 이르기까지 지형 및 지세가 험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식생에 따라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 그리고 관목림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DMZ 내부의 산림의 경우, 사계청소와 주기적 산불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20년생 미만의 어린 소나무림과 맹아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민통선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 영향이 미치지 않아 중동부 지역의 산림은 임령이 높고 일부 극상림도 나타내며 우수한 산림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민통선 지역의 산림의 경우, 군작전을 위한 전술도로로 인해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

비무장지대의 산림은 크게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및 관목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임상별로는 혼효림이 전체산림 중 약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 주로 활엽수림과 관목림이, 동부지역에 혼효림과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목, 관목 그리고 덩불림으로 형성된 산림 및 관목덩불림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남북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쪽 산림은 인접지역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북쪽은 산림의 훼손이 심하여 남북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임상별, 소밀도별 임목축적량을 추정한 결과 총 임목축적량은 150만 $m^3$ 로 나타났고, 그중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6만 $m^3$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임목축적량은 27 $m^3$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남북한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사계청소 등 군사목적에 의한 지속적 산림훼손과 산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식물상 및 식생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Backdu Mountain Chain),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Core Eco-Axes)의 하나로 국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중요 지역이다. 특히, 백두대간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생태축으로서의 의미가 높은 것과 같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생태축으로서의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DMZ는 남방계 생물과 북방계 생물이 교류하는 자리에 있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온대지역의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일원은 자연적이거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은 훼손되나

<sup>2)</sup> 위의 책, p. 89.

반대로 초본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풍부한 초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뛰어난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DMZ 일원의 생태계 조사 결과, 야생동·식물 2,716여 종을 포함하여 멸종 및 보호 야생동·식물 67종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은 식생에 대한 교란특성이 사계청소와 군사 훈련과 같은 군사목적에 위하여 주로 산불과 벌채 그리고 도로건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뢰밭과 같은 지역이 많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후방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나물류와 같은 식물의 선택적 채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즉 교란은 많으나 비교적 손은 덜 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저습지 등은 다른 토지용도로 이용되고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잦은 산불과 벌채 등으로 참나무류와 소나무류 등이 우점하는 이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습지식생, 해안식생, 초지군락 등이 형성되어있다.

동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73과 193속 263종 33변종 2품종으로 모두 298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보다 다소 온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동부산악지역은 태백산맥과 그것을 중심으로 발달한 계곡, 분지 및 대지 등과 동해로 유입되는 남강, 서해로 유입되는 북한강과 한탄강 등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자연환경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식물지리학적으로 보면, 북방계 식물요소와 남방계 식물요소가 혼생하는 등 한반도 식물상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89과 335속 597종 1아종 98변종 8품종으로 모두 704종류로 정리되었다. 중서부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96과 304속 517종 1아종 79변종 7품종으로 모두 604종류로 정리되었다. 금학산(947.3m), 고대산(832m), 지장봉(877.2m) 등 표고 800m 이상의



산지가 일부 있으나 아이스크림고지, 백마고지, 야월산 및 천덕산 등 대부분이 50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이길리, 대마리, 월정리를 주축으로 하는 철원평야, 산명호, 토교저수지, 강산지, 학저수지 등 많은 저수지 및 늪지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은 115과 429속 683종 2아종 120변종 12품종 등 모두 817종류로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식물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파주, 김포, 강화도, 석모도, 교항도, 대청도, 백령도 등이 포함되는 비무장지대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의 산림식생은 과도한 인위적 간섭으로 인하여 도서지역인 대청도 일부 급경사 절협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식생이 파괴된 후 재생된 이차림, 맹아림과 조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무장지대는 산불과 사계청소 등 서식지의 지속적인 교란으로 대부분 2차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간의 간섭이 없는 고산 및 저습지가 많고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교차하여 서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식물상은 한국특산식물 금강초롱꽃, 정향풀 등 1,000여 종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곱양지꽃, 흰소영도리, 흰패랭이꽃 등도 발견되었다.

### Ⅲ.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

#### 1. 정전협정 준수 상황

한국정전협정의 서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남북한 양측은 군사정전협정에서 규정한 주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중무장지대화하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2km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지상태를 보면,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sup>4)</sup> 북측의 경우 북한이 정전협정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 이남에 철책선을 가설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 측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여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비무장지대 내에 철책선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북한 측은 북방한계선에서 비무장지대 내로 1~1.5km까지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고, 남한 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까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지역은 그 이상까지 들어가 설치된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무장구정의 준수상태를 보면, 북측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근거리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 전투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진지

3)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이라는 주장 외에 「한국과 참전 16개국」, 또는 「유엔」만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서울프레스, 1997), p. 54.

4)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따라 매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시물의 수는 모두 1,292개이다. 김영봉 외,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p. 28.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갯도(땅굴), 29.4km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sup>

우리 측도 이에 대항하여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주요지점에 제한된 수의 GP 와 O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한 측은 GP 및 OP 100개소, 107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북한 측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한 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표 2〉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구축 및 장비배치 현황

구분	GP/OP	방송시설	철책선	지원시설	박격포	고사포	대전차포	기타
북한	158/124	(117)	260km	3,362동	234	92	28	316
남한	87/13	(107)	290km	1,209동	-	-	-	-

자료 : 전성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1999).

비무장지대는 지난 60여 년 동안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체결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인원, 장비, 시설 등 중무장시설들을 철거하여 순수한 비무장지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 내 GP 및 OP 등의 군사시설 구축과 철조망의 비무장지대 내 진입 설치의 비무장지대에 형성된 귀중한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북측은 그 훼손의 범위와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sup>5)</sup> 전성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1999), p. 9.

있어 비무장지대의 원상태 회복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은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정전체제의 한계와 관리상의 현안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정전협정의 부산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 비무장화된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나 국토 활용 측면에서는 유보지역의 성격을 가진 채 현황조사나 활용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측면의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에 의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가 아닌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와 비무장지대의 유지를 위한 감시기관에는 정전협정 자체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구와 남북한이 각자 군사적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감시기구가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정전협정 제2조 19~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정전협정 제2조 36~43항)가 있으며, 남북한이 설치한 감시기구는 남북한 각자가 운영하는 민정경찰이 있다.<sup>6)</sup>

군사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정전협정의 빈번한 위반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전체제의 제도적 한계

<sup>6)</sup>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담은 1991년 2월13일 제459차 이후 정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 후 북한은 1994년 5월 판문점대표부를 만들었으나 유엔 측은 1998년 장성급회담을 만들어 유엔사와 북한군이 참여하여 회담을 하고 있다. 1995년 3월 이래 비무장지대 관리를 책임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북측 구성원이 북한의 요구로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전체제의 한계와 주요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정전협정 내에 협정위반사건의 억제와 시정을 위한 강제규정 및 그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전협정 내용의 수정과 증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위반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 내에 이 협정의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간에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53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 중 북한 측의 실제 위반 건수는 408,739건이나 북한 측이 인정한 위반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상기 기간 중 유엔군 측의 실제 위반건수는 16건에 불과하나 북한 측은 454,605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된 적은 거의 없었다.

셋째, 정전협정에는 일반적인 비무장 의무를 규정할 뿐 비무장지대 내에 시설설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과 금지되는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분명치 않은 규정을 악용하여 비무장지대 내에는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군사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 준수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전협정위반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

7) 제성호,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pp. 5-6.

정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전협정은 비무장상태의 유지라는 군사적 측면의 접근 외에 이의 관리와 활용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공동활용 정책은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과거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경과한 현재 비무장지대는 비교적 우수한 생태계를 비롯해 연구와 활용이 필요한 국토의 특이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정전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은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귀중한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원상태의 회복과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

### 1. 비무장지대 활용의 기본방향

녹색평화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의 활용은 우선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의 발길이 제한됨에 따라 형성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남북이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에 심혈을 기울려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의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이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비무장

지대에 형성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그들의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에 그동안 참여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 이익의 증진과 국토환경의 보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녹색평화적 차원에서 활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구상토록 하고,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방안을 마련한다. 한반도 중앙지대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면적의 비무장지대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남북한 공유하천과 고산준령은 멸종위기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군사작전으로 인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그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보전된 귀중한 생태자원은 세계인의 관심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원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을 유도한다.

넷째,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

해 기존에 이용한 토지와 교통망을 활용한다. 교통망의 연결과 군사시설의 철수 그리고 농업활동 등에 있어서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한다.

다섯째,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에 남북한이 공동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재난을 방지한다.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화재와 홍수 그리고 병충해의 예방과 대처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한다.

## 2. 녹색평화 시각에서의 협력사업 구상

### 1)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비무장지대는 생태자원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 국제적으로도 희귀 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형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형태로, 동부 및 중부지역은 산악이 발달한 고지대로 수목 등 생태계가 우수하고, 서부지역은 습지, 철새도래지, 해안 갯벌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정부부처와 환경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계의 조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 큰 틀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핵심지역으로 하고 민통선 및 접경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들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의 추진가능지역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 전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성을 강화하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 가능성을 감안하여 생물권보전



지역의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분을 위한 관리범위의 적정규모 설정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을 구분한다. 비무장지대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한국전쟁 이후의 독특한 전쟁유산, 멸종 위기종 및 희귀종의 주요 서식처로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핵심지역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중복 등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의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생태조사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연장 추진하여 남측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철저한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북한 당국 및 학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단계는 북측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및 종합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북한의 동의하에 북측 비무장지대의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비무장지대 전역의 생태계조사를 종합 정리하고, 소유권 정리, 관리지역 설정 등의 순서에 따라 종합보전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종합보전대책 수립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추진을 위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 3단계에서는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및 세계복합유산 동반등재를 추진한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국내외적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설악산-비무장지대-금강산(DMZ녹색평화의 산) 연계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한 기대효과를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희귀생태 자원의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기능 등과 같은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의 연결과 체계적인 보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남북한 화해협력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DMZ녹색평화생태공원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특성은 서해 한강 하류 비무장지대의 광활한 갯벌과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역의 철새도래지, 습지 등 다양한 자연 생태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부의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평야지대의 철새도래지, 동부의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한 희귀동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9월 “비무장지대 평화선언”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일원에 생태평화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태평화공원의 지정은 남북 평화 화합을 도모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환경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보지의 선정은 우선 DMZ의 생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남북공동조성이 가능한 지역, 생태평화공원조성이 가능한 지역,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 가능한 지역 등으로 하고 있다.

생태공원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보면, 서해 연안지역에서는 강화·연백지역의 갯벌,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역의 철새도래지, 중부의 임진강 희귀담수어종과 수변생태자원, 철원의 철새도래지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부의 경우는 북한강유역 수변의 생태자원, 양구 해안분지 주변의 다양한 생태자원, 그리고 동해안 비무장지대 감호 주변의 습지 등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추진방안은 비무장지대 내 주요생태자원의 남북한 합동조사를 통해 발굴한 희귀 및 우수생태자원을 중심으로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 조성

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의 생태계를 조사할 경우 비무장지대 설치 근거에 따라 남북한의 국내법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아우르는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3) DMZ녹색평화의 강 추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남북한 공유하천 유역은 생태적으로나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평화적인 협력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주요 하천은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소양강, 남강으로 이중 남강을 제외한 4개의 강은 본류가 북한에서 시작하여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쪽으로 흘러 서해에 이른다. 이중 임진강과 북한강은 현재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 측면에서 남북이 협력해야 될 시급한 사안을 안고 있다. 특히 임진강과 북한강의 경우 북측에서 댐을 건설하여 유역을 변경함에 따라 하류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하류의 용수부족으로 전력생산의 차질과 생활용수에 영향을 끼치고, 한편으로는 수공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요 공유하천을 DMZ녹색평화의 강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한다.

임진강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과 북한의 중·상류지역은 댐 건설에 가능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석된다. 중·상류 북한지역은 높은 산악과 깊은 협곡이 많고 취락지역과 농경지가 적어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보상지역이

적으나, 북한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남북합의를 도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남방에 댐을 건설할 경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 내 광범위한 주변지역의 수몰로 인해서 농경지와 귀중한 생태자원, 그리고 문화재 등의 수몰이 예상된다.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은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임진강유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홍수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줄여나간다. 나아가 남북한 임진강유역에 대한 주요하천에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 댐의 공동 활용방안 강구와 하천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재난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보면,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북한강 계곡은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나 상류에서 물을 대량 방류할 경우 하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북한강을 차단하여 임남댐을 건설 담수에 들어감에 따라 약 17억의 물이 차단되어 남으로 내려오는 물이 크게 줄면서 이 지역 생태계의 파괴와 전력생산 용수 등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임남댐과 평화의 댐에 이르는 유역으로 주로 평화의 댐에서 비무장지대 사이의 지역과 북으로는 비무장지대에서 임남댐까지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가능한 추진방안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의 댐 담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다. 평화의 댐 담수를 통해서 임남댐(금강산댐)까지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 및 금강산 관광수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화

천담까지 연계 이용하는 방안과 임남담의 저수량의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평화의 댐으로 방류하여 화천담의 전력생산과 수도권 일원의 용수공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아가 임남담과 평화의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강유역의 생태계 복원과 홍수의 조절, 그리고 전력생산과 생활용수를 확보토록 한다.

남북한 주요 공유하천은 남과 북이 자유롭게 활용해야 하는 한반도의 젓줄이다. 이러한 강이 북한지역에서의 댐건설로 지금은 유역이 변경되고 흘러가야 될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활용은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DMZ녹색평화의 강이 유유히 흐르게 될 것이다.

#### 4) DMZ녹색평화브리지 건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며 단절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육상을 통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한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대륙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동북아지역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반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북한의 경우 통과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한반도중단철도(TKR)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경우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며 연결되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비록 생태통로를 일부 설치하였지만 반세기가 넘게 형성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것은 이 지역에 형성된 귀중한 습지와 생태자원의 손실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경원선과 국도3호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남과 북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비무장지대에 연육교(DMZ녹색평화브리지)를 설치하여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DMZ녹색평화브리지는 역사성을 부여하여 한반도 중앙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와 화합차원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설 한다. 예를 들어 DMZ녹색평화브리지 우편 교각에는 우리민족사에 위대한 대왕들을 조각하고 좌측교각에는 각 분야의 우리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조각하여 세움으로써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이 여기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조각작품으로 연육교를 건설한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지점인 DMZ평화브리지 중앙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관망하고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평화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영국 댄스강의 타워브리지와 같은 구조도 좋을 듯하다.

한편 한강하구에서 서해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공유수역은 교량대신 강하저에 터널을 뚫어 남과 북을 연결하게 한다. 이는 한강하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토록 한다. 이는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DMZ를 활용함으로써 녹색평화브리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5) DMZ녹색평화의 들 조성

비무장지대에서의 농업협력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기 전에 논과 밭으로 경작하였던 지역이 이제는 생

태적으로 귀중한 습지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농업협력가능지역은 서부의 파주지역, 중부의 연천과 철원지역이 가장 여건이 좋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현재 농업이 이행되고 있는 지역은 파주지역이다. 파주지역의 특성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측은 대성동 마을(파주시 조산리), 북측은 기정동 마을(판문군 기정리)이 입지하여 있다. 이 지역은 임진강의 하류지역으로 평탄한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남북분단 전에는 농경지로 사용된 곡창지대이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후에도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나 양측 마을이 있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일정지역은 농경지로 개간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휴전협정으로 남방한계선 이북(DMZ) 조산리 지역에 피난하여 귀향한 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당시 주민은 30세대 160명이었으나 분가 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51세대 227명이 되었다. 이 지역은 한국정전협정에 의해서 남측은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반에서 관리하고 북측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 측 사령관이 관할하고 있다. 경작면적을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남측 약 500미터 지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의 대성동 마을은 4.83km<sup>2</sup>(146만 평)의 면적에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정동 마을도 군사분계선 북방 약 500미터의 평야에 자리 잡고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작지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지만 대성동 마을과 동일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은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양측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지정리와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주변의 경작 가능한 구릉지 및 과거 농경지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농경지 확장 가능성을 진단

한다. 보전이 필요한 주요 생태자원을 선별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협동농장을 추진하되,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력을 투입하여 벼농사 및 특수화훼농업을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DMZ의 맑은 공기와 물 흙 등 청정자연 환경에서 화훼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남과 북이 공동으로 평화의 꽃농장을 조성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생산된 아름다운 꽃을 평화의 상징으로 온 세계에 수출한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의 훼손을 막고 현재의 농토를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지대로 만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녹색평화의 꽃이 피는 평화의 들이 되도록 한다.

## V. 결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활용은 생태계의 보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동시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구상은 다가올 통일국토에서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방대한 토지자원과 여기에 조성된 귀중한 생태자원의 평화적인 이용방안의 모색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활용을 통한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비무장지대의 지형적 특성과 토지이용실태 그리고 주요 생



태자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무장지대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군사적 측면에서 조명해봄으로써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녹색평화의 차원에서의 주요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우리민족사의 비극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세기가 넘는 이제는 역사적인 유적으로서 그리고 생태계의 보고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주변지역에 형성된 귀중한 생태자원은 세계의 생태학자들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한 번 가보고 싶은 관광자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녹색평화의 차원에서 보는 비무장지대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고 가치를 높여가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우선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생태적으로 특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DMZ녹색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가꾸어감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도록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절된 남북한 교통망을 연결하되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DMZ평화브리지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이 자연친화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녹색평화의 들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 분쟁상태에 있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녹색평화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강으로 복원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 녹색평화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미래의

통일국토를 바라보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0년 4월 19일 / 수정: 2010년 5월 19일 / 게재확정: 2010년 5월 25일

## 【참고문헌】

- 김영봉.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 김영봉 외.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 . 『경의·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2003.
- .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5.
- . 『남북경협 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8.
- . 『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9.
-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9.
-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1999.
- 김재한 편. 『DMZ II - 횡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도서출판 소화, 2000.
- 이문향.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 이재범. 『태봉의 궁예, 철원에 살아있다』. 철원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2005.
- 전성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1999.
- 정규서 외. 『DMZ III - 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2002.
-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프레스, 1997.
-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학술회의발표논문, 1997.
- 차중환·제성호·김병우.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2000.
- 안중환 외.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조성에 관한 시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 원병오 외.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성천문화재단, 1996.
- 국가정보원.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분석』. 국가정보원, 2001.
-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건설교통부, 2000.
-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임업연구원,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DMZ) with  
a Conceptual Framework of Green–peace Space

Kim, Young-bong(President of the Korean Prospe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DMZ)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peace”. The projects includes an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and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DMZ, administrative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area, and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region. The study proposes a few cooperation projects: 1) a systematic con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ecosystem of the DMZ and its surrounding areas ; 2) collaborative use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rivers running through the region ; 3) and reconnec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s. Major emphasis of the cooperation projects is placed o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he enhancement of its values,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green assets from the DMZ. The green-peace projects include: 1) designation of the DMZ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2) construction of the green-peace parks ; 3) creation of the green-peace rivers ; 4)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green-peace bridges ; and 5) accommodation of the green-peace fields in the DMZ.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sense of urgency to implement these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DMZ, Biosphere Reserve, Ecosystem, Green-peace

**김영봉** .....

한양대학교 공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반도발전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Korea 접경포럼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우리나라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